

AI 사업 국비 예산 반영·경제자유구역 지정·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착공

광주 3대 미래산업 연말 본격화 되나

인공지능 중심도시 조성 예산 426억→700억 증액 나서
빛그린 산단과 에너지밸리 등 5개 지구 투자 유치 총력
완성차 공장 예정대로 연내 착공 땀 광주형 일자리 탄력

향후 광주의 미래 경제를 이끌어 갈 3대 미래성장동력사업의 선결 과제들이 연말인 12월께 결정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시의 역점사업인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사업의 규모가 결정될 내년 국비 예산과 광주 경제자유구역 예비 지정, 광주형일자리 합작법인인 자동차공장 착공 여부 등이 모두 다음달 결정되기 때문이다. 순조로운 사업 추진과 향후 사업 규모 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어서 광주시는 막판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426억원으로 검토중인 인공지능 중심도시 조성사업 내년 국비 예산을 국회 예결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700억원으로 늘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상주하며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회 예결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정치권도 나서고 있어 최종 국비 확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사업에는 인공지능 건축물 시스템 설치와 데이터센터 구축, 기업 지원 등 설립, 연구개발(R&D) 예산 등이 포함됐다. 광주시가 AI 관련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배경에는 사실상 첫 걸음마를 떤 사업인데다 광주시의 현안사업인 만큼 사업 초반에 충분한 국비 확보를 통해 사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달 예비지역을 발표할 예정인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향후 광주 미래 경제를 이끌 주요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지역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만큼 결과가 주목된다. 산업부는 20일 광주시가 신청한 경제자유구역 일원인 남구 대촌동 에너지밸리에서 현장 실사를 끝마쳤다. 평가위원들은 이날 광주가 제시한 지역들이 경제자유구역으로 부합하는지, 향후 실현 가능성, 빠른 시기에 준공 가능 여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현장 실사를

토대로 오는 28일 개발계획 등 프레젠테이션을 들고 다음달 중 예비 지정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지 확정 발표는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고됐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9월 산업부에 빛그린 산단과 에너지밸리, 평동 3차 산단, 첨단 3지구 등 5개 지구, 5.6㎢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조세 감면, 규제 완화 등 기업에 유리한 경영 환경과 생활 여건을 조성해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특별구역이다.

광주시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기반 융복합 산업 거점 조성과 함께 지역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촉진해 명실상부한 혁신 성장의 서남권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최근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을 중심으로 첨단산단, 평동산단 등 7개 구역 16.79㎢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무인 저속 특장차 사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광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형일자리 완성차공장도 애초 예정된 연내 착공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공장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와 시공사 선정 절차 등을 병행하고는 있지만, 이 과정에서 돌발 변수 등이 나올 경우 연내 착공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시정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애초 예상대로 연내 착공이 이뤄질 경우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순경중 광주시 전략산업국장장은 “올 연말에 결정될 인공지능 관련사업 국비 예산과 광주 경제자유구역지정, 광주형일자리 자동차 공장 착공은 광주의 미래 전략산업이자, 미래 먹거리사업이다”면서 “향후 광주 미래 경제를 좌우할 3대 현안사업인 만큼 좋은 결과가 있도록 막판까지 광주시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황금빛 고흥 유자 맛 보세요” 21일 고흥군 풍양면 대청마을 주민들이 노랗고 탐스럽게 영근 유자를 수확하고 있다. 올해 잇따른 태풍과 장마를 이겨낸 고흥 유자는 kg당 3300~4000원대로, 예년에 비해 다소 오른 가격에 수매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아시아 문화원류를 찾아서 - 네팔 ▶14면

책세상 - 김진애의 도시 3부작 ▶15면

KIA 올해 최고 신인 이창진 ▶20면

사랑과 감사의 65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한·일 지소미아 오늘 종료

靑 NSC “다양한 상황 대비”

청와대는 종료 시간(23일 0시)을 하루 앞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마지막까지 종료 사태를 피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관계국들을 상대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청와대는 21일 지소미아 종료 여부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NSC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

적 노력을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 종료 시한에 앞서 일본과 막판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은 지소미아 종료 여부와 관련, “종료되지 않는 쪽과 종료가 불가피한 쪽, 두가지 다 열어두고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아베 정부 입장에선 완전히 본인들의 잘못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백기를 들라는 식으로, 이번 기회에 굴복시키겠다는 태도다 보니까 진전이 정말 안 되고 살얼음 겉만이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내일 종료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남구·서구 수돗물서 발암물질 ‘나프탈렌’

검출 농도 밝혔던 것보다 40배 높았다

광주시, 뒤늦게 공개

최근 발생한 광주 수돗물 이물질 사고 당시 남구·서구 일부지역에 공급됐던 수돗물에서 발암가능물질인 ‘나프탈렌’이 검출됐다는 사실(광주일보 2019년 11월 20일자 1·3면)이 드러난 가운데, 검출 농도가 애초 광주시가 밝혔던 것보다 최대 40배 이상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시는 21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공개하면서 나프탈렌 함유 수돗물 사고 근본 대책인 노후 수도관 조기 교체, 수돗물 모니터링 강화 등 관련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황봉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프탈렌 수돗물 공급 사고는 노후 수도관 코팅막이 열거워진데다 주변 공사 진동이 맞물려 일어난 일시적 사고”라며 “인체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었으며, 현재는 불검출 상태”라고 진화에 나섰다.

광주시 상수도본부에 따르면 지난 7·8일 수돗물 이물질 사고 당시부터 지난 12일까지 상수도본부 산하 수질연구소가 남구, 서구 일원 소화전과 가정집 등 173곳(중북

포함)에서 수돗물을 채취, 분석한 결과 모두 42곳에서 나프탈렌이 검출됐다.

백운동 소화전에서 채취한 수돗물 나프탈렌 농도가 l당 최대 129㎍(마이크로그램, 100만분의 1g)으로 가장 높았다. 가정집 수도꼭지에서 채취해 분석한 수돗물 중에선 l당 15㎍이 가장 높은 농도였다.

그러나 상수도본부 측은 지난 20일 광주일보가 ‘수돗물 이물질 성분 및 농도를 밝혀달라’는 요구에 “나프탈렌이 l당 3㎍ 정도 검출됐다”고만 언급했을 뿐, 관련 정보 일체를 공개하는 데엔 주저했다.

황 본부장은 “이물질이 포함된 수돗물을 수도관, 아파트 저수조 등에서 모두 빼내는 작업이 끝난 지난 12일 이후에는 광주 어느 곳에서도 발암가능물질인 나프탈렌은 전혀 검출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발암가능물질 검출 사실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선 “나프탈렌은 미국 가이드라인(170㎍/l) 이하로 광주 일부 수돗물에서 일시 검출된 양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시민들 관점에서 보자면 저희 판단이 잘못됐다. 무조건 시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층층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촘촘하게 레이어링하는 고평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